

# “스키&보더 마니아 주목! 일본 겨울 아웃도어 결정판”

## 일본 스키투어의 성지, 겨울 도호쿠



최고의 겨울 스키여행을 준비한다면 그 담은 멀리 있지 않다. 바다 건너 일본 혼슈 최북단에 자리하며 일본 No.1을 자부하는 명품 겨울리조트들이 즐비한 도호쿠(東北)지방이 자리하니 말이다. 100% 천연 파우더 스노우가 가득한 코스와 이국임을 실감케 하는 장대한 자연 절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스러운 즐거움과 개성을 더하는 온천까지 기록하다. 도호쿠만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주목의 스노우시즌 명품 리조트와 즐길거리로 기득한 도호쿠 6현의 즐거움에 시즌을 기다린 스키어&보더들의 마음은 도호쿠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 이상직 기자



### 아오모리현 青森県

#### 혼슈 최북단, 순결도 100% 감동의 파우더

홋카이도와 마주보고 자리한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은 풍부한 강실량과 아름다운 지형으로 일본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스키리조트로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곳. 다양한 매력의 아오모리현 내 스키장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스키어들의 인기 드는 곳이 바로 아오모리현의 청정지인 핫코다 스키장이다.

핫코다스키장([www.hakkoda-ropeway.jp/en/ski/skiarea.html](http://www.hakkoda-ropeway.jp/en/ski/skiarea.html))은 자연과 스키어라면 자연의 위대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각별하다. 산 정상부를 장식하는 거대한 수빙의 위용이 압도하는 핫코다 스키장은 코스가 단 5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어들이 친환경에 마지막을 두고 있다. 산 정상부를 장식하는 거대한 수빙의 위용이 압도하는 핫코다 스키장은 코스가 단 5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어들이 친환경에 마지막을 두고 있다.

스키어들은 차운 환경을 찾는 이들이라면 300년 역사 일본 국민온천 제1호, 스카유온천([www.sukayu.jp](http://www.sukayu.jp))이 있어 빙합니다.

온천수질은 온천다운 산성유황전으로 스카유온천의 가장 큰 자랑은 센난부로(千人風呂)라 불리는 혼욕대욕탕이 단연 명물이다. 몇 백년은 지났을법한 노송나무로 마감된 80여 평의 땅에는 남탕과 여탕이 공존한다. 온천 입구에서 남녀탕의 실이 나누어지고 칸막이는 없을지언정 남녀 옥탕이 구분되니 혼탕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 수도꼭지도 사워기도 없는 옛맛 그대로의 명품온천을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만족도가 어느 고가의 온천료인 못지 않으니 또한 놓치기 어렵다.

산 정상부는 그야말로 천연의 자연 그대로다. 눈과 바람이 합작한 거친 눈기둥인 수빙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외길 코스 이외에 어떠한 인공물도 찾을 수 없으니 스키리조트에 온 것인지 천연의 설산에 발을 내민 것인지 알 수 없는 폐감이 한번쯤은 대자연의 설산에서 활강을 꿈꾸어왔



던 스키&보더들의 흔을 말끔히 빼놓는다. 로프웨이가 품은 얹도 마찬가지다. 온통 새하얀 눈으로 겹겹이 쌓여 설국의 묘새를 연상케 할 정도다.

코스는 결코 만만치 않다. 코스의 정상부는 정설되지 않고 코스 곳곳에 스키어를 긴장시키는 모설까지 더해져 종급 이상의 스위스를 예상하는 아름다운 핫코다의 코스를 제작할 수 있다. 물론 핫코다의 모설을 견딜 수 없다면 파우더 스노우에 허리 깊이 까지 짜지는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스키어들이 더해 온천을 찾는 이들이라면 300년 역사 일본 국민온천 제1호, 스카유온천([www.sukayu.jp](http://www.sukayu.jp))이 있어 빙합니다.

온천수질은 온천다운 산성유황전으로 스카유온천의 가장 큰 자랑은 센난부로(千人風呂)라 불리는 혼욕대욕탕이 단연 명물이다. 몇 백년은 지났을법한 노송나무로 마감된 80여 평의 땅에는 남탕과 여탕이 공존한다. 온천 입구에서 남녀탕의 실이 나누어지고 칸막이는 없을지언정 남녀 옥탕이 구분되니 혼탕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 수도꼭지도 사워기도 없는 옛맛 그대로의 명품온천을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만족도가 어느 고가의 온천료인 못지 않으니 스키리조트에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폐감이 한번쯤은 대자연의 설산에서 활강을 꿈꾸어왔

### 아키타현 秋田県

#### 드라마 ‘아이리스’의 무대가 된 스노우파라다이스

일본 도호쿠 아키타현은 일본다운 전통과 온천, 그리고 미인의 고장으로 유명세다. 한국에선 ‘아이리스’라는 드라마를 통해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아이리스1과 아이리스2의 두 작품 모두 아키타현의 아름다운 겨울 설경을 무대로 벌쳐져 겨울여행의 명소로 더 없이 친근하다.

겨울 아웃도어 테마인 스키도 각별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거닐었던 아름다운 다자와코 호수를 조망하는 다자와코 스키장([www.tazawako-ski.com](http://www.tazawako-ski.com))이 자리해 겨울 스키아&보더를 유혹한다. 다자와코 호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다. 깊이가 약 423m에 이르는데 깊은 호수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해 호수만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을 정도다.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다자와코 호수를 눈앞에 두고 드라마틱한 활강을 즐길 수 있는 ‘다자와코 스키장’은 역사나 절경이 압권이다. 맑은 날이면 최정상부로부터 다자와코 호수의 푸른 호반을 향해 활강을 즐길 수 있어 그 어떤 스키장보다도 압도적인 조망권을 뽐낸다.

다자와코 스키장의 또 다른 특징은 여유롭게 설계된 와이드 슬로프다. 타 스キー이나 보더의 진로를 신경쓰지 않고 자신만의 활강을 즐길 수 있으니 초심자라도 안심하고 봄비지 않는 한적한 슬로프이니 황제스키도 부럽지 않다. 참고로 슬로프의 폭은 국내 최대 폭을 자랑하는 용평리 조트의 3배에 달할 정도다.

설질도 일품이다. 아키타현은 일본 내



에서도 홋카이도만큼이나 눈이 많이 내리는 호설지역. 겨울 시즌 내내 100% 자연설에 극도로 습도가 낮아 가루처럼 부서지는 파우더 스노우를 맛볼 수 있으니 스키&보더의 스킬도 일취월월한다.

메인코스는 긴레이 제3리프트로부터 연결되는 ‘고구마이 코스’. 일본의 전국체전을 위해 조성된 코스로 최대경사 33도(평균 27도)에 1,600m의 활주거리. 그리고 다자와코 호수를 최정면에서 바라보며 활주할 수 있어 활강하는 몸은 물론이고 눈까지 즐겁게 한다.

아키타 겨울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막거리도 필수코스다. 대표적인 항토요리인 카리탄포 나베다. 모양은 흔한 어묵이나 가래떡을 닮았다. 쌀밥을 지어 짓뭉개서 길다란 어묵모양으로 만들고 가운데 긴 카ochi를 짜려놓았는데 우리네 떡과 누룽지의 중간쯤되는 식감을 연상하면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카리탄포를 이용한 요리가 카리탄포 나베다. 닭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갖은 야채를 넣고 카리탄포를 넣어 함께 끓여먹는데 뜨끈한 국물이 겨울 추위를 녹이기에 제격이다.

### 이와테현 岩手県

#### 일본 최고의 설질, 아스피린 스노우와 만나다

홋카이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일본 제2의 스키성지 도호쿠 이와테현은 최강의 설질과 만날 수 있는 스키아들의 낙원이다. 설질에 까다로운 스키아들이 홋카이도와 이와테현을 두고 고민을 할 정도이니 이와테현의 설질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다.

이와테현 대표 스키리조트는 단연 앗피리조트([www.appi.co.jp/appi\\_white](http://www.appi.co.jp/appi_white))다. ‘King of Snow’로 불리우는 앗피리조트는 이와테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일본 유수의 스키리조트로서 극상의 파우더감을 자랑하는 최고의 눈과 만날 수 있는 인기 스키리조트.

설질이 홋카이도만큼이나 좋다고 하면 앗피리조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른다. 설질이 일본 제일이라는 말로도, 그리고 파우더 스노우라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표현이 부족했는지 ‘아스피린 스노우’라는 각별한 이름을 앗피리조트의 눈에 불일 만큼 극도로 습도가 낮은 최고급 흰연설이 스끼&보더의 맘을 그대로 헤아립니다.

꼼꼼한 암설도 체크포인트다. 아스피린 스노우의 설질도 좋은데 여기에 설면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암설을 통해 눈을 즐기는 리조트로서의 모습을 더해낸다. 때문일까. 앗피가 자랑하는 최장 5.5km의 롱 다운힐의 폐감은 그 어떤 스키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미끄러짐의 폐감을 분출시킨다. 코스 정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애마바토 코스는 북사면을 따라 코스 맨 오른쪽을 크게 휘어져 센터하우스로 이어지며 장식되는 애마 나이트 일루전 등의 이벤트가 시즌 내내 개최되어 슬로프 밖에 서의 즐거움까지 더해준다.



애피리조트, 스노우 어트랙션

는 초심자코스이기에 막 스キー의 재미를 찾은 이라도 안심하고 끝없는 다운힐을 만끽할 수 있어 필수코스다.

롱코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5.5km의 애마바토 코스 외에도 총 21개 코스 중 절반이 넘는 12개 코스에서 2km 이상의 롱코스를 만끽할 수 있어 스키 레벨을 떠나 다운힐에 몰입했던 스끼어 및 스노보더에게는 그 어떤 스키장보다 앗피의 배려가 반갑기 그지없다.

프로 기준을 즐기고픈 코어유저라면 앗피를 대표하는 ‘자일라 롱 코스’가 어울린다. 올림픽 3관왕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T자일라 선수가 직접 설계한 기념비적인 코스로 4,000m의 롱 크루즈과 최대경사 26도의 슬립감, 그리고 슬립을 베가시키는 탁 트인 시야가 이를값을 특히 해낸다.

리조트 내 시설도 수준급이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미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오피셜호텔인 호텔 앗피 그랜드는 설경 속의 노천탕이 자리한 앗피온천 파티 오를 비롯하여 일류미네이션으로 호텔 주변이 장식되는 애마 나이트 일루전 등의 이벤트가 시즌 내내 개최되어 슬로프 밖에 서의 즐거움까지 더해준다.